

breathe & books · 숨은책방

살기 위해 죽음을 보러 길을 나서다

고흐 · 볼츠만 · 카잔차키스 — 세 개의 무덤을 걷다

COSMONOMAD

숨은책방 breathe&books · 강원도 고성군 거진

《살기 위해 죽음을 보러 길을 나서다》

목차

프롤로그

- 파리의 겨울, 출발의 공기
- 빈센트의 마지막 시공으로
- 마을, 그림 속으로 들어가다
- 압생트, 녹색의 요정이 부른 광기
- 까마귀 나는 밀밭에서
- 두 형제의 마지막 대화
- 시간의 순례

에필로그

프롤로그

나는 살기 위해 죽음을 보러 길을 나섰다.

처음부터 죽음을 사랑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삶이 자꾸만 나를 낯선 끝으로 밀어붙일 때,

나는 살아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졌다.

어떻게 건디셨습니까.

어떻게 그토록 아팠으면서도

끝내 해바라기를 그리고, 별을 그리고, 밀밭을 그리셨습니까.

고흐를 만나러 간다는 것은

한 화가의 무덤을 찾아가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한 인간이

상처 입은 다른 인간의 흔적 앞에 서는 일이었다.

파리에서 기차를 타고 오베르쉬르우아즈로 향하던 날,

창밖의 풍경은 조용히 흘러갔다.

낮은 지붕들, 묵은 들판, 구름 낀 하늘,

그리고 어딘가 아직도 젖어 있는 듯한 초록빛.

나는 생각했다.

고흐는 왜 그토록 많이 그렸을까.

왜 그렇게 가난했고, 외로웠고, 흔들렸으면서도

붓을 놓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는 성공하기 위해 그린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 그렸을 것이다.

하루를 더 견디기 위해,

자신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빛을 붙잡기 위해,

그는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희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다.

그의 무덤 앞에 선다는 것은

죽음의 패배를 확인하는 일이 아니라,

끝내 삶을 향해 타오르던 한 영혼의 불꽃을 마주하는 일이다.

나는 오베르의 길을 걸으며

그가 마지막으로 보았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은 아무 말이 없었다.

밀밭도, 교회도, 오래된 돌담도

그의 이름을 크게 부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들었다.

살아라.

아파도 살아라.

흔들려도, 버려진 것 같아도,

네 안의 노란빛을 끝까지 잃지 말아라.

나는 그 말을 들으려

먼 길을 온 것인지도 모른다.

살기 위해

죽음을 보러.

고흐의 무덤 앞에서

나는 죽음보다 오래 남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명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성도 아니었다.

그것은 끝내 자신을 태워

세상에 한 점의 빛을 남기려 했던

한 인간의 고독한 성실함이었다.

파리의 겨울, 출발의 공기

파리는 약 2억 5천만 년 전(트라이아스기)부터 해양 퇴적물이 층층이 쌓여 형성된 거대한 그릇 모양의 지형이다. 특히, 약 4500만 년 전 따뜻한 열대 바다였던 파리 지역에 쌓인 조개껍데기와 미생물이 굳어 만들어진 석회암과 석고층은 몽마르트 언덕의 기반을 이루었으며, 루브르 박물관이나 노트르담 대성당 같은 상징적인 건축물들을 짓는 데 사용되었다. 이 풍부한 자원은 예술가들이 모여 석고상을 만드는 창작 활동의 시작점이기도 했다.

파리의 겨울은 한국처럼 뼈를 찌르는 듯한 추위는 드물지만, 습하고 맑은 날보다 구름 낀 날이 훨씬 많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와 연말 마켓의 화려한 조명이 비 내리는 젖은 도로에 반사되면 파리 특유의 몽환적인 분위기가 깊어진다. 완전히 다른 모습의 밤의 파리에 반해 잠시 머무르고 지체하다 주말이 되어서야 비로소 빈센트 반 고흐를 만나러 움직였다.

파리 북역에서 한 시간이면 닿는 거리지만, 주말의 파리 대중교통은 종종 설명 없이 열차를 취소해버린다. 예정된 시간표보다 운이 더 중요해지는 날들이기에, 나는 이른 시간에 움직이는 것을 택했다. 도시가 완전히 깨어나기 전, 혹시라도 열차가 사라지기 전에 다녀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빈센트의 마지막 시공으로

파리 북역(Gare du Nord)에서 발몽두아(Valmondois) 방향 H선을 탑승했다. 발몽두아에서 하차한 후, 퐁투아즈(Pontoise)행으로 환승하여 한 정거장 뒤, 오늘 나의 목적지인 오베르쉬르우아즈(Auvers-sur-Oise)에 도착한다. 휴일 이른 새벽의 열차 안은 사람이 거의 없어 한산했다. 기차가 도시를 벗어나자, 창밖의 풍경이 서서히 달라졌다. 뾰족한 건물 대신 들판과 낮은 지붕들이 겹겹이 스쳐 지나간다. 이 풍경은 선명하기보다는 번져 있고, 마치 물을 너무 많이 찍은 붓으로 급히 덧칠해 놓은 수채화처럼 느껴지기까지하다. 그렇게 감상에 잠겨 있을 즈음, 기차는 어느새 빈센트 반 고흐의 마지막 시공으로 천천히 들어가고 있었다.



· 오베르쉬르וא즈 기차역

기차에서 내려 역을 빠져나가니, 19세기 후반의 서정적인 시골 풍경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다. 고흐에게 이곳은 생애 마지막 70일을 보낸 곳이자, 죽기 직전까지 무려 80여 점의 작품을 쏟아낸 예술적 불꽃의 현장이었다. 그는 이 작은 마을에서 고향 네덜란드를 떠올리며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자 했다.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곳을 아름다운 시골이라 칭하며 특히 이끼 낀 지붕들의 오래된 초가집에 매료되었다고 썼다.

마을, 그림 속으로 들어간다

마을 곳곳에는 그의 그림이 그려진 자리에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완성된 작품을 전시하여 그림이 태어난 장소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고흐가 어디에서 어떤 시선으로 붓을 들었는지, 그 위치가 그대로 남아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언덕 위에 우뚝 솟은 고딕 양식의 오베르 성당은 고흐의 그림 <오베르의 교회> 속 모습 그대로이다. 특유의 뒤틀린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도는 실제 건물을 마주하는 경험은 압도적이다. 마을 뒤편으로 넓게 펼쳐진 언덕 위 밀밭은 고흐가 마지막 열정을 불태운 장소로, 바람에 흔들리는 밀밭을 보고 있으면 그의 고독과 예술혼이 느껴지는 듯하다.



· 오베르의 교회 — 고희의 그림 속 모습 그대로



· 오베르의 교회

고흐가 머물렀던 라부 여인숙(Auberge Ravoux)는 좁고 어두운 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소박한 식당과 외벽이 인상적으로, 마을의 중심적인 상징물 역할을 하고 있다. 고흐는 친구 피사로의 충고에 따라 닥터 가세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 1890년 5월 20일 오베르쉬르우아즈에 정착했다. 초기에는 호텔 생오벵에 머물다가 시청 맞은 편 이곳 라부 여인숙에 하숙하게 되었다.



· 라부 여인숙(AUBERGE RAVOUX) — 고희가 마지막으로 머문 곳

압생트, 녹색의 요정이 부른 광기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 예술가들의 작품, 정신, 그리고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 문화 현상 중 하나는 압생트(Absinthe)였다. 특히 빈센트 반 고희, 로트렉, 고갱, 피카소, 보들레르, 랭보 같은 예술가들은 압생트를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창작의 점화 장치처럼 사용했다. 압생트는 알코올 도수 45~74%에 달하며, 주요 성분은 쑥(*Artemisia absinthium*)이다. 쑥 속의 투존(thujone) 성분이 환각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환각보다는 약한 해리감, 통증 무감각, 감정 과잉을 유발했다고 한다. 19세기 파리에서는 녹색의 요정(La Fée Verte)이라고 불리며 예술가와 지식인들의 상징적 술이었다.

원래 감정의 파도가 크고 감각이 예민한 기질이었던 고희에게 압생트는 그 감각을 더 날카롭게, 더 과열되게 만들었다. 이는 그의 그림에서 색채 대비가 강해지고 붓질이 격렬해지며 감정이 폭발하는 시기와 겹친다. 특히 아를 시절의 노란 방, 해바라기, 그리고 <까마귀가 나는 밀밭> 등에서 나타나는 반짝이는 색채는 압생트의 시각 과민(색채가 더 생생하게 보임) 영향도 일부 있었을 것이라는 연구도 있다. 고희는 자주 밥을 굶고 술로 대신했는데, 압생트는 공복, 불면, 감정 불안 상태에 최악의 영향을 미쳤다. 그의 발작 시기와 음주 기록이 겹치는 경우가 많으며, 귀 절단 전후에도 압생트와 와인을 계속 마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라부 여인숙의 식당에서 나는 빈 유리잔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그도 이 자리에 앉아 녹색의 요정을 마셨을지 모른다. 압생트는 고희의 색채적 감각을 자극했지만, 동시에 정신적·신체적 붕괴를 빠르게 진행시킨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다.



· 라부 여인숙 안, 압생트를 재현해둔 전시

가족과의 갈등과 폭발적인 창작열

고흐가 오베르쉬르우아즈에 머물던 1890년 6월 말, 동생 테오는 건강 악화와 직장 문제로 깊은 불안에 빠져 있었다. 일부 기록과 해석에 따르면, 파리를 방문했던 고흐에게 테오는 자신의 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털어놓았다고 한다.

절대적인 후원자이자 삶의 희망이었던 테오의 흔들림은 빈센트에게 큰 절망감을 남겼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직후 그는 <까마귀가 나는 밀밭>, <오베르의 교회> 등 대표작들을 폭발하듯 그려내기 시작했다. 작품 하나하나에는 시간에 대한 조급함과 마지막 열정이 배어 있었다.

자살이 아닌, 죽음의 수용

빈센트는 <까마귀를 날리는 장면>을 그리려고 밀밭에 갔다. 까마귀 장면을 위해 총을 쏘고 싶어 했다는 구전은 라부 여인숙 가족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그 밀밭에는 늘 아이들이 총을 가지고 카우보이 놀이를 하며 놀고 있었다고 한다.



· 「까마귀가 나는 밀밭」이 그려진 바로 그 자리

1890년 7월 27일, 고흐는 초라한 다락방의 침대 위에 피를 흘리고 누워 있는 상태로 라부의 가족에게 발견되었다. 그를 진찰한 닥터 가셰와 닥터 마제리에 따르면, 총알은 빈센트의 옆구리에 수평에 가까운 각도로 박혀 있었는데, 이는 스스로 총을 쏠 때의 각도(자살 각도)와는 달랐다고 증언한다. 총을 든 아이들이 쏜 총이 빗나가 사고가 발생했고, 빈센트는 놀랐지만 피를 흘리면서도 오롯이 2km를 걸어서 여인숙으로 돌아왔다.

많은 연구자들은 빈센트가 총을 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고를 자살로 남기기로 선택했다고 보기도 한다. 그는 치료를 거부하며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였다. 이것이 전통적인 자살 개념과 다른 지점이다. 빈센트는 죽으려고 총을 든 것이 아니라, 사고로 총을 맞았고 그 후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해 죽음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한 것이다.

두 형제의 마지막 대화

총상을 입은 이튿날, 파리에 있던 동생 테오는 닥터 가셰의 편지를 받고 오베르쉬르우아즈로 급히 달려왔다. 두 형제는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날 밤 고흐는 의식을 잃었고, 7월 29일 새벽 1시 30분 동생의 품에 안긴 채 "이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기고 파란 가득한 37년의 삶을 마감했다.

7월 30일, 고흐는 동생 테오, 화가 베르나르(Émile Bernard), 화구점 주인 탕기 영감(Julien François Tanguy), 닥터 가셰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베르쉬르우아즈의 공동 묘지에 묻혔다. 그리고 그의 죽음 후 불과 6개월 뒤인 1891년 1월 25일, 형의 죽음 이후 갑자기 건강이 악화된 테오도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에서 33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 고흐의 서간집이 출간된 1914년에 이르러서야 테오의 유해는 형의 무덤 옆에 안치되어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다.

시간의 순례

나는 언덕을 지나 들판으로 나왔다. 그가 마지막으로 붓을 들고, 숨을 쉬었던 자리이다. 나는 그 들판에 서서 잠시 바람을 들이마셨다.



· 고흐가 마지막 열정을 불태운 밀밭

조금 더 걸어가자 공동묘지 입구가 보였고,



· 오베르쉬르우아즈 공동묘지 입구

빈센트와 테오, 형과 동생의 무덤이 차분히 펼쳐진 공간에 도착했다.



· 빈센트와 테오, 나란히 잠든 형제의 무덤

광기와 헌신, 절망과 우애. 한참을 서서 생각했다. 이 시간은 빈센트를 향한 순례였지만, 동시에 내 안의 그림자를 향해 걸어온 길이기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슬픔은 지나가고, 아름다움은 남는다."

나는 그 문장을 마음속에서 다시 읽어보았다. 그의 시간 위에 나의 시간이 겹쳐진다. 왜 지금, 그의 죽음을 보러 왔는지는 아직 나도 모르겠다. 다만 역사와 지리가 아닌, 나의 시간으로 이 길을 지나가고 있다는 감각만이 남아 있다.

그는 여기서 70일을 숨쉬고 74작품을 남겼다.



Racines d'arbres

27 JUILLET 1890

Les beaux arbres de Tien, meublent ce
donneur de Van Gogh. Les couleurs
sont, cadet les gris comme un gris
sombre, présente une composition
généralisée, et est une image
plus directement à un monde
de la nuit, peut-être pour
de toute évidence une charge
de la nuit, est allégué à la
nuit de la nuit.

part. Chien's brother-in-law refers to this
Van Gogh's last. This rendering of how
and very closely like a photograph is
presented an almost abstract composition.
Actually, it is also the image that can be most
associated with a well-known, only recently
of. This subject, painted on the same day as
the clearly comes a spiritual change "my life
ended at the very end" he wrote on 27 July.

Uggh Museum's Vincent van Gogh Foundation

516

· 반 고흐의 마지막 그림 — 「나무 뿌리(RACINES D'ARBRES)」, 1890. 7. 27



· 「나무 뿌리」가 그려진 실제 장소를 알리는 안내판 — 2020년에야 밝혀졌다

나는 아직 여기서 살아 숨쉬고 있다.

그 차이가, 나를 이 길로 데려왔다.

에필로그 — 별이 된 해바라기를 뒤로하며

오베르 쉬르 우아즈의 저녁은 조용했다.

밀밭 위로 바람이 지나가고,

까마귀는 하늘을 가로질렀다.

고흐가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을 풍경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평생 그림을 그렸다.

가난했고, 외로웠고, 자주 흔들렸다.

살아 있는 동안 단 한 점의 그림밖에 팔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너무 유명하다.

그러나 나는 그의 무덤 앞에서

성공한 화가를 만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리기를 멈추지 않았던 한 사람을 만났다.

해바라기는 시들고, 밀밭은 수확되고, 사람은 늙어간다.

그러나 진심으로 바라본 풍경은 사라지지 않는다.

고흐는 세상을 소유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세상을 사랑하려 했다.

별빛을 사랑했고, 구름을 사랑했고, 사람을 사랑했고, 삶을 사랑했다.

너무 많이 사랑했기에 때로는 견디지 못했을 뿐이다.

나는 무덤 앞에 서서 생각했다.

삶이란 무엇일까.

어쩌면 삶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사랑했는가의 기록일지도 모른다.

고흐는 짧게 살았다.

그러나 그의 눈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다시 보게 만든다.

밤하늘은 더 깊어졌고, 해바라기는 더 노랗게 피어났으며, 평범한 의자 하나도 누군가의 삶을 담은 우주가 되었다.

죽음은 한 사람의 시간을 멈추게 했지만 그가 바라본 세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무덤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나선다.

살아 있는 사람의 시간으로 돌아가기 위해.

오늘의 하늘을 올려다보고, 오늘의 바람을 느끼고, 오늘의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고흐의 죽음을 보러 떠난 길은 결국 삶을 더 깊이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길이었다.

그리고 나는 안다.

언젠가 나 역시 사라지겠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사랑한 것들은 어딘가에 작은 빛으로 남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살아 있는 시간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간다.

베르나르 Émile Bernard (1868-1941) 프랑스 화가. 고흐와 가장 친한 친구이자 예술적 동료.

탕기 영감 Julien François Tanguy (1825 Plédran - 1894 Paris) 파리에서 화구점을 운영, 가난한 예술가들의 후원자로 고흐는 '탕기 아버지'라 부름.

목차

프롤로그

1. 세상 만물의 모습
2. 빈, 시간의 도시
3. 중앙묘지로 가는 길
4. 묘비에 새겨진 공식
5. 혼돈 속의 질서
6. 엔트로피와 가능성
7. 시간의 화살
8. 생명과 사랑 그리고 죽음

에필로그

프롤로그

사람은 왜 죽은 이를 찾아 먼 길을 떠날까.

그가 남긴 업적을 배우기 위해서일까.

역사의 한 페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언젠가 다가올 자신의 죽음을 조금 먼저 마주해 보기 위해서일까.

오스트리아 빈 중앙묘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다.

황제를 위해 작곡한 음악가도 있고, 제국을 움직였던 권력자도 있으며, 세상을 바꾸려 했던 사상가도 있다.

그러나 내가 찾아온 사람은 묘비에 이름보다 공식이 먼저 새겨진 사람이다.

$S = k \log W$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묘비 중 하나. 루트비히 볼츠만.

그는 별을 발견한 천문학자도 아니었고, 새로운 대륙을 찾은 탐험가도 아니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었다.

원자. 분자. 확률.

그리고 혼돈 속에서도 숨어 있는 질서를 보려 했다.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말한 원자는 보이지 않았고, 그가 말한 세계는 너무 낯설었다.

살아 있는 동안 그는 외로웠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의 생각으로 세상을 설명한다.

커피가 식는 이유도, 향수가 사라지는 이유도, 별이 태어나고 죽는 이유도, 그리고 우리가 늙어가는 이유도.

모두 그의 공식 안에 있다.

나는 빈 중앙묘지의 나무 그늘 아래서 그의 묘비를 바라본다.

죽음은 한 사람을 데려갔지만 사유는 남았다.

돌 위에 새겨진 짧은 공식 하나가 12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 있는 사람들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죽음을 보러 온 것이 아니다.

어쩌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기 위해 이 먼 길을 왔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 볼츠만의 시간 위에 나의 시간을 조용히 포개어 본다.

빈, 시간의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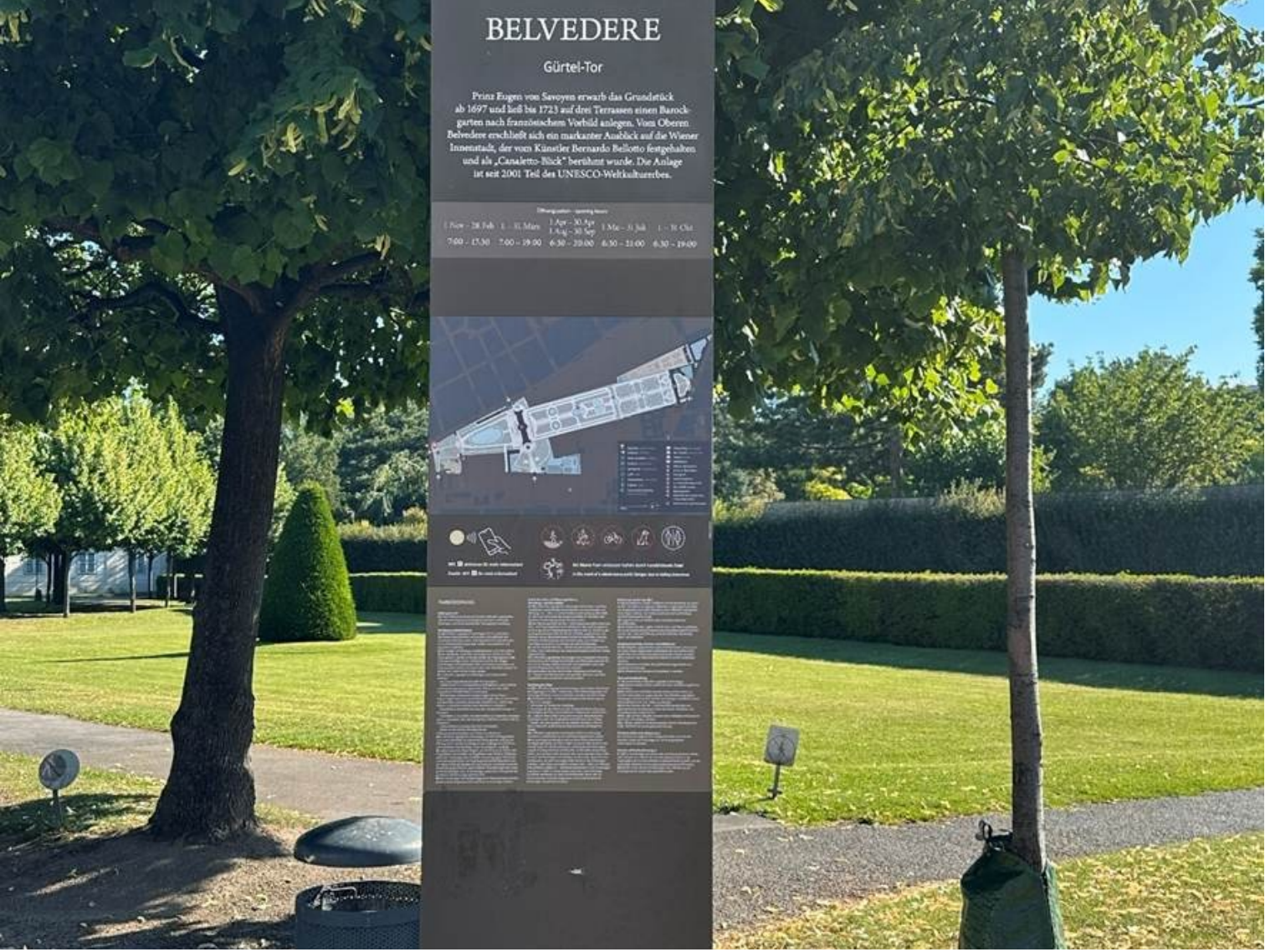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비엔나)은 지리적으로 알프스 산맥과 카르파티아 산맥이 만나는 지점이자, 도나우강이 흐르는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다.

빈은 지질학적으로 빈 분지(Vienna Basin)라 불리는 독특한 구조 위에 세워졌다. 약 2,000만 년 전(신생대, 마이오세), 알프스와 카르파티아 산맥이 충돌하며 지각이 잡아 당겨져 형성된 끌어파트(Pull-apart) 분지다. 최대 5,000m 두께의 퇴적층이 쌓여 있다. 약 1,000만 년 전, 이 지역은 거대한 내해(또는 호수)였던 파노니아 호수의 서쪽 가장자리였다. 이때 쌓인 찰흙(점토)층은 훗날 빈의 유명한 벽돌 산업의 기반이 되었다. 도나우강은 오랜 세월 흐르며 계단 모양의 지형(단구)을 만들었다. 빈의 구시가지는 홍수로부터 안전한 높은 단구 위에, 현대식 건물들은 강변 저지대에 위치하게 된 이유다. 시 서쪽을 감싸는 빈의 숲(Wienerwald) 산지는 주로 사암(Flysch)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알프스의 동쪽 끝자락에 해당한다.

빈은 고대 로마의 요새에서 시작해 세계 대제국의 수도로 성장했다. 고대 및 중세(기원전 ~ 15세기) 빈도보나(Vindobona)는 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도나우 강변에 세운 군사 요새다. 현재의 빈 1구 지역이다. 바벤베르크 가문이 12세기 오스트리아 공국의 수도가 되면서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급성장했으며 1155년 하인리히 2세가 이곳에 거처를 정했다. 합스부르크 제국 시대(15세기 ~ 1918년)에는 1440년부터 합스부르크 가문의 거점이 되어 신성 로마 제국의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했다. 1529년과 1683년, 오스만 제국의 공격을 막아내며 유럽 기독교 세계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 이후 바로크 양식의 화려한 궁전(벨베데레, 쇤브룬 등)들이 건설되었다.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등이 활동하며 음악의 도시로 명성을 떨쳤고, 19세기 말에는 프로이트, 클림트 등 혁신적인 지식인과 예술가들의 중심지가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해체되면서 오스트리아 공화국의 수도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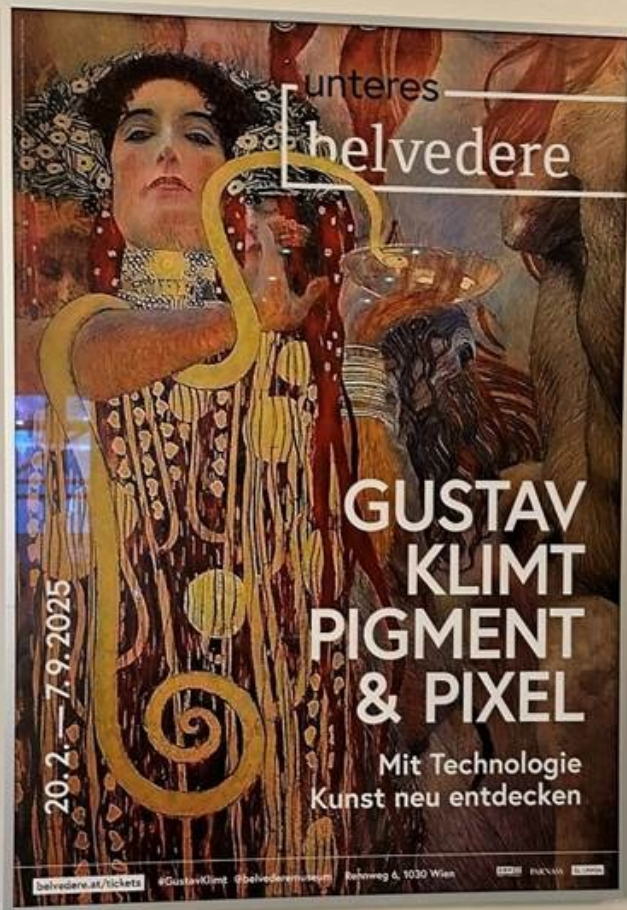
· 벨베데레 궁전에서 바라본 시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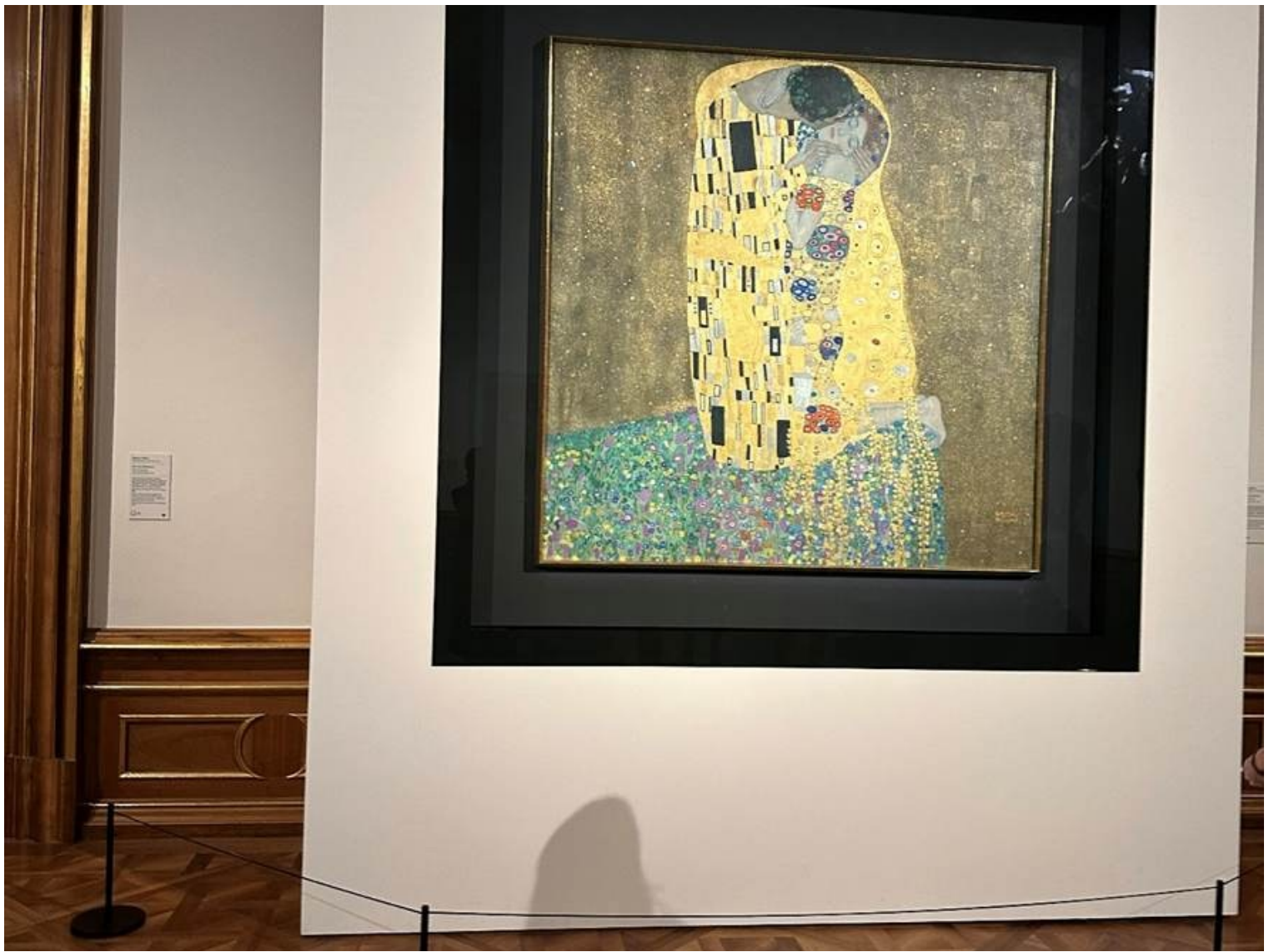
· 벨베데레 궁전 안내판



· 벨베데레 궁전 정문



· 벨베데레 궁전 안, 클림트 전시



· 클림트의 「키스」

중앙묘지로 가는 길



· 중앙묘지 정문 앞, 나란히 늘어선 꽃집들

오늘 나의 목적지 비엔나 중앙묘지(Wiener Zentralfriedhof)는 1874년 개장, 약 2.5km²(약 330만 명 안장) 규모로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묘지이다.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 유대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 구역, 위대한 음악가들(Musikergräber, 32A 구역)을 만날 수 있는 역사적인 장소이며, 숲과 산책로가 잘 구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공원 역할도 한다. 시내에서 71번 트램을 타고 'Zentralfriedhof 2.Tor'(제2문)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드디어 그를 만나러 가보자.



· 빈 중앙묘지 제2문(ZENTRALFRIEDHOF 2.TOR) 입구



· 빈 중앙묘지 안내도

묘비에 새겨진 공식



· 루트비히 볼츠만의 묘비 — S = K LOG W

죽음 앞에서 위계는 사라진다. 볼츠만의 묘는 의외로 소박하다. 장식도, 설명도 많지 않다. 돌 위에 새겨진 것은 찬란한 업적의 나열이 아니라 단 하나의 식이다.

$$S = k \log \omega$$

나는 그 식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살아 있던 시절, 이 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원자, 확률로 설명되는 세계는 너무 낮설었기 때문이다. 동료들은 비웃었고, 강단은 등을 돌렸으며, 그의 설명은 철학에 가까운 추측으로 밀려났다. 죽음은 진실보다 먼저 찾아온다. 볼츠만은 자신의 이론이 옳다는 것을 증명받지 못한 채 스스로 생을 놓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의 생각은 살아남았다. 엔트로피는 교과서가 되었고, 확률은 자연의 문법이 되었으며, 원자는 더 이상 가설이 아니다.

엔트로피와 가능성

질서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몸과 삶 전체로 견뎌낸 사람이 루트비히 볼츠만이다. 그가 마주한 세상은 늘 어긋나고, 섞이고, 흩어졌다. 열은 식고, 구조는 무너지고, 모든 것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갔다. 되돌아오지 않았다. 그 흐름을 사람들은 혼돈이라 불렀지만 볼츠만은 그 혼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들여다보았다. 볼츠만이 발견한 세상의 비밀은 간단하다. 어지러운 상태가 정돈된 상태보다 경우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자연은 ω (상태 수, 경우의 수)가 가장 많은 쪽(무질서)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이다. 흩어지는 것이 모이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자연은 그저 확률이 높은 쪽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놔두면 커피는 식고(열이 퍼짐), 향수는 날아가고(분자가 퍼짐), 방은 어지럽혀진다. 이것이 바로 엔트로피(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뜻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지금 나라는 존재가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다.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놔두면 흩으로, 공기로 흩어지고 싶어한다. 하지만 우리는 밥을 먹고 숨을 쉬며 에너지를 쏘아 부으며, 거대한 우주의 흐름을 거슬러 질서를 지켜내고 있는 기적적이고 숭고한 상태다.

그의 묘비에 적힌 위대한 공식 $S = k \log \omega$ 는 말한다. 질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확률 속으로 숨어드는 것이라고. 컵에 담긴 뜨거운 물이 식어가는 것은 질서의 붕괴가 아니라 입자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많은 경우의 수로 이동하는 과정이라고. 엔트로피란 무질서의 이름이 아니라 가능성의 개수였다.

시간의 화살

여기서 시간의 화살이 생긴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자연은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없고, 깨진 컵은 저절로 원래대로 붙지 않으며, 사랑도, 생명도 항상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시간의 방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질서한 세계 안에서 생명은 태어난다. 국소적으로 질서를 만들기 위해 주변의 엔트로피를 더 밀어내면서. 숨 쉬고, 먹고, 사랑하고, 기억하면서 자신만의 질서를 세운다.

생명, 사랑 그리고 죽음

삶이란 엔트로피 증가를 거스르는 투쟁이 아니라 그 위에서 잠시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사랑은 엔트로피에 저항하는 가장 강력한 결속 에너지다. 자연은 가만히 두면 멀어지고, 식어가고, 잊혀진다. 관계를 유지하고, 누군가를 아끼고, 내 몸을 돌보는 행위는 저절로 허무해지려는 우주의 법칙에 맞서 나의 세계를 단단하게 구축하는 숭고한 투쟁이다. 죽음은 더 이상 에너지를 써서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상태다. 나를 구성하던 원자들이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태(높은 확률)로 돌아가 다시 우주로 흩어진다. 치열하게 질서를 유지했던 긴장(생명)을 내려놓고 우주의 거대한 흐름에 온전히 맡기는 휴식이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없다. 에너지는 형태를 바꿀 뿐, 정보는 흔적으로 남는다. 볼츠만의 무덤에 새겨진 공식처럼 그의 생각은 죽음 이후에도 세계에 남아 여전히 우리를 설명한다. 혼돈 속에서도 질서는 우연처럼 태어나고, 의미는 흔들림 속에서 만들어진다.

볼츠만의 시간 위에 이제 나의 시간이 겹쳐진다. 돌아갈 수 없기에 지금은 단 한 번이고, 그래서 이 순간의 선택과 사유는 더없이 무겁고도 선명하다. 죽음 이후에도 남는 것들을 따라 나는 다시 나의 시간으로 돌아온다. 무덤 앞에서 나는 절망보다 차분함을 느꼈다. 질서는 즉각 보상받지 않아도 되고, 의미는 살아 있는 동안 완성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이곳에서 배운다. 볼츠만의 삶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의 사유는 죽음을 지나 계속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묻는다. 나는 왜 지금 이 사람의 죽음을 보러 이 먼 길을 왔을까. 아마도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되묻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흔들리며 살아온 나의 선택들, 증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문장들, 지금 쓰고 있는 이 글까지도 모두 하나의 확률로서 세계 안에 놓인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질서가 다른 형태로 이동하는 순간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묘지를 나선다. 그리고 다시, 살기 위해 나의 시간으로 돌아온다.

볼츠만의 무덤 앞에서 나는 오래 서 있지 않았다. 기념사진도 남기지 않았다. 이미 충분했다. 그의 공식은 돌에 새겨져 있었지만, 그가 끝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식이 아니라 태도였을 것이다. 세상은 단순하지 않으며, 설명되지 않는 시간은 반드시 존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이해하려 시도해야 한다는 태도.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온다. 이 명제들은 냉정하지만 절망의 언어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준다.

볼츠만의 삶은 증명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 너무 오래 홀로 버텨야 했던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의 사유는 그 시간을 지나 우리의 현재를 설명하는 언어가 되었다. 죽음 이후에도 남는 것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내가 이곳에 와서 확인하고 싶었던 전부였다.

혼돈 속에서도 질서는 잠시 태어나고, 흔들림 속에서 의미는 만들어진다. 완성되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사라지지 않고 흐름 속에 남는다. 볼츠만의 시간 위에 나의 시간이 겹쳐졌다가 이제 다시 분리된다. 나는 묘지를 떠나 현재로 돌아간다.

되돌릴 수 없기에 더 신중하게, 그러나 두려움에 멈추지 않고 살기 위해. 죽음을 보러 온 길은 결국 살아야 할 이유를 다시 정렬하는 길이었다.

묘비명 — LUDWIG BOLTZMANN 1844–1906

가족 합장묘: ILSE FASOL geb. Boltzmann(손녀, 1927–2021) · HENRIETTE BOLTZMANN geb. Aigentler(아내, 1854–1938) · PAULA BOLTZMANN geb. Chrobak(며느리, 1874–1970) · ARTHUR BOLTZMANN(아들, 1881–1952) · LUDWIG BOLTZMANN(동명 손자,

1923-1943)



· 중앙묘지 안 장례식장 회랑



· 음악가 명예 묘역(EHRENGRÄBER) 32A 구역



· 베토벤의 무덤



· 명예 묘역 14A 구역 — 담쟁이에 덮인 길

에필로그

볼츠만의 무덤 앞에서 나는 오래 서 있지 않았다.

그의 이름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돌에 새겨진 짧은 공식이었다.

$S = k \log W$.

그것은 물리학의 식이었지만, 나에게서는 삶에 대한 문장처럼 보였다.

세상은 끊임없이 흘러지고 식어가며, 모든 것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사람도 늙고, 관계도 변하고, 사랑도 기억도 언젠가는 시간을 통과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는 그 사실 앞에서 절망보다 평온함을 느꼈다.

우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기 때문에 소중하다.

볼츠만은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사유는 죽음을 지나 오늘까지 살아남아 우리에게 우주의 언어를 들려주고 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지우지 못한다.

우리가 남긴 생각, 우리가 건넨 사랑, 우리가 건넬 시간들은 다른 형태의 질서가 되어 누군가의 삶 속에 스며든다.

어쩌면 삶이란 거대한 우주의 엔트로피 증가 속에서 잠시 피어나는 작은 질서일지도 모른다.

한 번의 숨. 한 번의 만남. 한 편의 글.

그 짧은 순간들이 모여 한 사람의 우주를 만든다.

나는 죽음을 보러 이 먼 길을 왔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에 내가 품고 있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이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오늘. 되돌릴 수 없는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다는 사실.

불츠만의 시간 위에 잠시 나의 시간을 포개어 본 뒤, 나는 다시 현재로 돌아간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한다.

혼돈 속에서도 나만의 질서를 만들며, 흩어짐 속에서도 의미를 잃지 않으며, 주어진 시간을 끝까지 살아보겠다고.

죽음을 보러 온 길은 결국, 살아야 할 이유를 다시 발견하는 길이었다.

. . .

목차

프롤로그

- 지중해의 징검다리
- 대륙이 만나는 섬
- 미노아 문명의 기억
- 왜 우리는 그리스 신화를 알아야 하는가
- 니코스 카잔차키스
- 자유를 향한 투쟁
- 정교회와의 갈등
- 묘비에 남은 세 문장

에필로그

프롤로그

지중해의 바람은 오래된 기억을 품고 있다.



· 크레타 앞바다

아프리카에서 불어온 먼지, 아시아에서 건너온 상인들, 유럽을 향해 떠난 배들의 노랫소리.

크레타는 세 대륙의 경계에 놓인 섬이다.

지도 위에서는 작은 점처럼 보이지만, 수천 년 동안 문명이 지나가고 제국이 스쳐 지나간 자리다.

나는 이 섬에 한 사람을 만나러 왔다.

그는 왕도 아니었고, 장군도 아니었으며, 성인으로 추앙받지도 못했다.

오히려 교회로부터 비난받고, 시대와 끊임없이 충돌했던 작가였다.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는 평생 자유를 찾아 헤맸다.

신에게 질문했고, 인간의 욕망을 들여다보았으며, 죽음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그의 묘비에는 이름보다 먼저 세 개의 문장이 남아 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때는 강인한 결심처럼 보였다.

그러나 크레타의 태양 아래서, 지중해를 바라보며 다시 읽으니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문장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기 위한 문장이었다.

나는 지금 그가 잠들어 있는 언덕을 향해 걷는다.

그리고 묻는다.

자유란 무엇인가. 의미는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왜 끝내 살아가야 하는가.

죽음을 보러 떠난 길 위에서 나는 다시 삶의 질문을 만나게 된다.

대륙이 만나는 섬

크레타는 아프리카 판과 유라시아 판이 충돌하며 솟아오른 지형이다. 이 때문에 섬 전체에 험준한 산맥(이디 산 등)과 깊은 협곡(사마리아 협곡)이 발달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지중해 정중앙에 위치하여, 고대부터 해상 무역의 중심지이자 문화적 교차로 역할을 했다. 판의 경계에 있어 지진이 잦았으며, 인근 테라(산토리니) 섬의 거대한 화산 폭발은 크레타 문명(미노아 문명)의 쇠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설이 유력하다. 정교한 건축, 화려한 벽화, 선형문자 A 등을 남겼다.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지중해 무역을 장악했으며, 벽화에서 알 수 있듯 여성의 권위가 높고 평화로운 문화를 향유했다.

화산 폭발과 지진, 미케네인의 침공 등으로 쇠퇴했으며, 미노아 문명 멸망 후 로마, 비잔틴, 아랍, 베네치아, 오스만 제국(튀르키예)의 지배를 차례로 받았다. 특히 오스만 제국의 지배(약 250년)에 맞선 치열한 독립투쟁은 니코스 카잔차키스 문학의 핵심 정서인 자유를 향한 피투성이 투쟁의 모태가 되었다. 1913년에야 비로소 그리스의 본토와 병합되었다.

미노아 문명의 기억



· 헤라클리온 고고학 박물관

미노아 문명(BC 2700~1450)은 유럽 최초의 고도 문명이다. 크노소스 궁전으로 대표된다. 현재 우리가 보는 크노소스 궁전은 기원전 2000년의 미노아 문명과 서기 1900년대 아서 에번스의 해석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섞여 있는 복합적인 유적이다. 이러한 진정성 논란으로 크노소스 궁전은 그 엄청난 역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보류되다가 최근에야(2023년) 다른 미노아 궁전들과 함께 등재될 수 있었다. 이런 배경을 알고 크노소스를 보게 되었고, 붉은 기둥과 화려한 벽화 사이에서 고대의 진실과 현대의 욕망을 구분, 흥미로운 관점이 생겼다. 크노소스 궁전과 함께 빠질 수 없는 것이 헤라클리온 고고학 박물관이다. 미노아 문명의 유물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장 중요하게 소장하고 있는 곳이다. 크노소스 유적지에 있는 벽화나 유물은 대부분 복제품이고, 진품은 모두 이곳에 보관되어 있다.



· 크노소스 궁전 유적지 전경



· 크노소스 궁전 — 현대식으로 복원된 붉은 기둥



· 크노소스 궁전의 벽화 (복제품)



· 헤라클리온 고고학 박물관 내, 크노소스 궁전 모형



· 박물관 내 미노아 문명 유물 — 석관

왜 우리는 그리스 신화를 알아야 하는가



・「미노아케스 아피히세이스」 — 크레타 신화, 르네상스부터 현대까지

그리스 신화는 단순한 옛날이야기가 아니라, 서구 문명과 인간 심리를 이해하는 운영체제(OS)와 같다. 서양의 문학, 미술, 철학은 그리스 신화라는 거대한 뿌리에서 나왔다. 르네상스 시대의 명화부터 현대의 영화, 소설에 이르기까지 신화적 상징과 모티프가 끊임없이 변주되어 나타난다. 그리스 신화 속 신들은 완벽하지 않다. 질투하고, 분노하고, 사랑하며, 실수한다. 이는 인간 삶의 다양한 단면과 감정을 극대화하여 보여주는 거울이다. 조르바의 춤은 디오니소스적 신화가 현대 인간으로 환생한 장면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용어의 어원이 신화에 있다. 에코(Echo), 나르시시즘(Narcissism), 아틀라스(Atlas), 타이타닉(Titan), 천문학(행성들의 이름과 별자리),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판도라의 상자 등. 신화를 통해 우리는 고난에 대처하는 인간의 자세, 오만에 대한 경계, 운명과 자유의지 사이의 갈등 등 보편적인 삶의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신화는 논리적인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세계의 기원과 현상을 상상력으로 채운 결과물인 것이다. 그리스 신화를 알면 인간이 왜 모순적인지, 왜 이성으로만 살 수 없는지, 왜 파괴와 창조가 함께 오는지를 비난 없이 이해하게 된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생애

카잔차키스는 영혼의 자유를 평생 동안 탐구했던 작가이자 철학자, 행동가였다. 1883년 크레타섬의 이라클리온에서 태어났다. 당시 크레타는 오스만 제국(튀르키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며, 어린 시절 목격한 독립 투쟁과 아버지의 강인한 성격은 그의 문학 전반에 흐르는 자유를 향한 투쟁의 기초가 되었다. 아테네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뒤 프랑스 파리로 유학하여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에게 사사했다. 이후 니체 철학, 불교, 맑스주의(공산주의), 기독교 신비주의 등 다양한 사상을 섭렵하며 자신만의 영적 체계를 구축했다. 발칸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고, 잠시 그리스 내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거나 유네스코에서 번역 담당자로 일하기도 했다. 평생 유럽,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세계 각지를 여행한 세계인이었다. 주요 작품으로 그리스인 조르바, 최후의 유혹, 미할리스 대장(자유냐 죽음이나), 영혼의 자서전, 오디세이아 등이 있다. 1957년 백혈병과 독감 합병증으로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7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정교회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이유

엄밀히 말하면 카잔차키스는 교단으로부터 공식적인 파문 문서가 확정되기 전에 사망했으나, 그리스 정교회는 그를 신성을 모독한 자로 규정하고 교회 묘지 매장을 거부했다. 이 갈등의 핵심 이유는 그의 문학 작품에 있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1951년 발표한 소설 《최후의 유혹》(The Last Temptation of Christ)이었다. 그는 예수를 신성한 존재가 아닌, 두려움과 욕망을 가진 고뇌하는 인간으로 묘사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잠시 정신을 잃었을 때, 십자가에서 내려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사는 유혹(환상)을 겪는다는 설정이 포함되었다. 결국 예수는 이를 뿌리치고 십자가의 길을 택하지만, 그리스 정교회는 이를 명백한 신성모독이자 이단적 행위로 규탄했다. 1954년 로마 가톨릭 교황청 역시 이 책을 금서 목록에 올렸다. 또한, 소설 《미할리스 대장》 등에서 그는 당시 부패하거나 권위적인 성직자들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묘사했다. 이는 보수적인 그리스 교회의 분노를 샀고, 그를 무신론자 혹은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는 빌미가 되었다.

교회가 그에게 저주를 퍼붓자 카잔차키스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편지를 보냈다.

"성스러운 신부님들, 당신들은 나에게 저주를 내렸지만 나는 당신들에게 축복을 보냅니다. 당신들의 양심이 내 양심만큼 깨끗하기를, 그리고 당신들이 나만큼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기를 기원합니다."

묘비에 남은 세 문장

그리스 정교회가 그의 시신을 교회 묘지에 안치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는 고향 크레타의 마르티넝고 요새(성벽 위)에 외롭게 묻혔다.



· 마르티넝고 요새 — 카잔차키스가 잠든 자리



· ΤΑΦΟΣ ΚΑΖΑΝΤΖΑΚΗ — 카잔차키스 무덤 안내판

그의 묘비에는 그가 평생 추구했던 삶의 태도가 새겨져 있다.



·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 나는 자유다



· 지중해가 내려다보이는 카잔차키스의 무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Δεν ελπίζω τίποτα)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Δε φοβούμαι τίποτα)

나는 자유다. (Είμαι λέφτερος)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무욕이 아니다. 여기서 바라지 않는다는 희망을 버렸거나 욕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외부가 나를 구원해 주길 기다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카잔차키스는 말한다. "의미를 나 대신 만들어달라고 신에게도, 역사에도, 미래에도 요구하지 않겠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책임 인수인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무감각이 아니다. 고통을 모른다거나, 죽음이 무섭지 않다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판단을 맡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는 두려움을 제거하지 않고, 두려움 위에서 선택하고 행동한다. 이건 용감함이 아니라 자율성이다. 그래서 마지막이 나는 자유다.

앞의 두 문장이 있어야만 이 문장이 성립하는 것이다. 바라지 않음으로 의존을 끊고,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회피를 끊고 그 결과, 자유는 상태가 아니라 선택을 되돌려 받는 일이다.

이 문장을 물리적으로도 읽어보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우주 안에서 의미를 외주 주지 않고 국소적으로 생성하겠다는 선언이다.

조르바의 춤으로 번역하면, 광산이 무너진 뒤 조르바는 말하지 않고 춤춘다. 그 춤은 이렇게 말한다. 다시 세워달라고 바라지 않는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서 리듬을 만든다.

나는 지중해를 바라보고 카잔차키스의 묘지 앞에서 되된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말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가 아니다. 내 삶의 의미를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겠다고.

그렇구나. 이 문장은 죽음의 문장이 아니라 살아 있는 나를 위한 윤리구나.

에필로그 — 나는 자유다

카잔차키스의 무덤은 의외로 소박했다.

화려한 기념비도, 웅장한 조각상도 없었다.

대신 언덕 위에서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다는 말이 없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다를 건너왔고, 수많은 문명이 흥망성쇠를 반복했지만, 파도는 여전히 밀려오고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다.

나는 잠시 묘비 앞에 서서 그가 남긴 세 문장을 다시 읽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젊은 날의 나는 자유를 얻는 것이라 생각했다.

돈이 생기면, 시간이 생기면,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면 자유로워질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카잔차키스는 반대로 말한다.

자유는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책임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라고.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내 삶을 미루지 않는 것.

그때 비로소 자유는 시작된다고.

문득 나는 이번 여행에서 만난 세 사람을 떠올린다.

고흐는 사랑을 위해 살았다.

볼츠만은 진실을 위해 살았다.

카잔차키스는 자유를 위해 살았다.

세 사람은 모두 살아 있는 동안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

외로웠고, 흔들렸고, 때로는 절망했다.

그러나 끝내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안다.

삶은 완벽해지는 과정이 아니다.

사랑하면서 흔들리고, 진실을 찾다가 길을 잃고, 자유를 향해 나아가며 수없이 실패하는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언덕 아래로 내려오며 나는 마지막으로 지중해를 돌아본다.

눈부신 햇살 위로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했고, 나는 여전히 부족했으며, 내일도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다.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답을 얻는 일이 아니라, 답이 없는 길 위에서도 자신의 발로 걸어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죽음을 보러 떠난 여행은 끝났다.

그러나 삶은 계속된다.

사랑을 배우게 한 고향. 시간의 소중함을 알려준 불츠만. 자유의 의미를 묻게 한 카잔차키스.

그들의 무덤을 뒤로하고 나는 다시 살아 있는 세계로 돌아간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신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는 자유롭게 살아간다.